

“인권 탄압 대항했던 ‘광주 경험’ 나눠달라”

자카르타 광주인권상 연례회의

국가권력의 인권유린 ‘진행형’ 인권상 수상자 제목소리 내고 각국 단체간 교류 활성화해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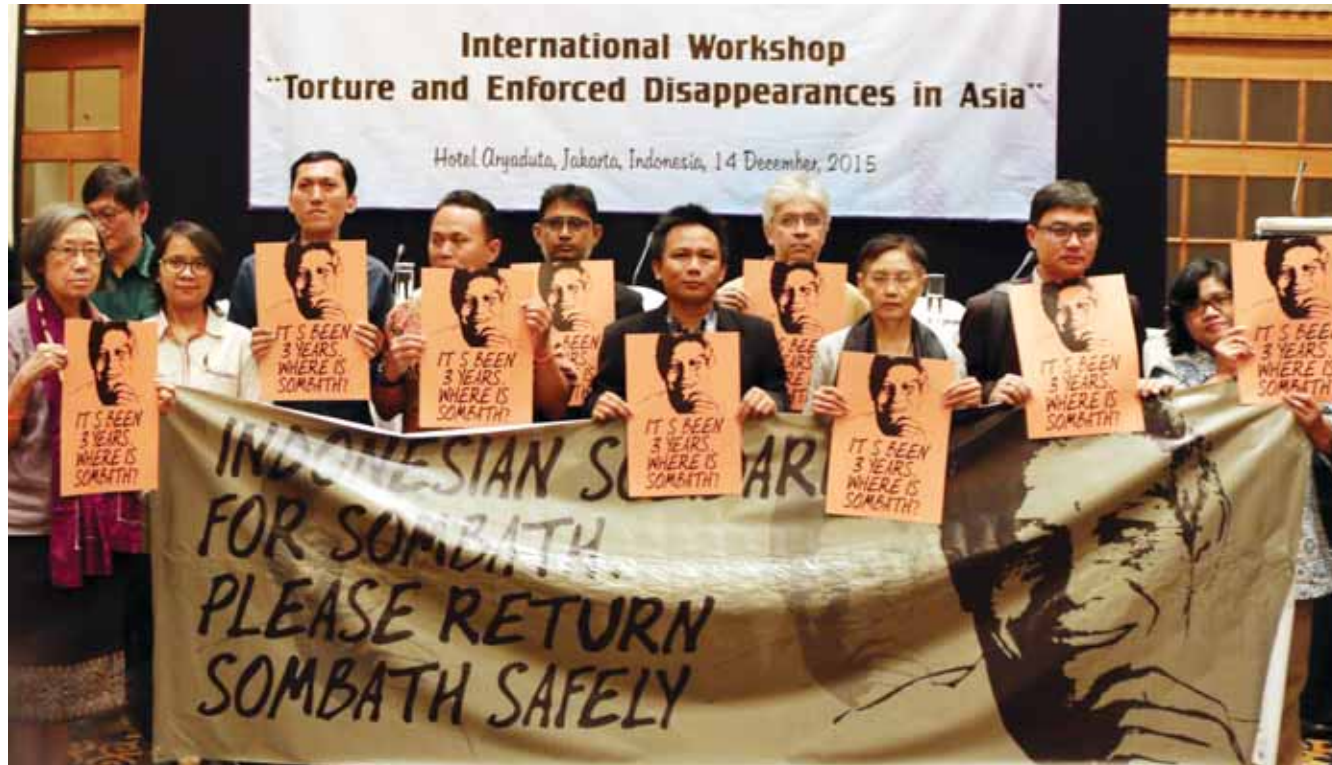
광주인권상 수상자들을 중심으로 인권 활동가들이 한데 모여 아시아에서의 인권 탄압 사례를 공유하고 향후 인권 운동의 방향을 모색하는 회의가 인도네시아 수도 자카르타에서 지난 14일 열렸다.

5·18 기념재단과 인도네시아 인권단체 임파살(Imparsial)이 공동 주최한 ‘2015 광주인권상 수상자 연례회의’에서 인권 활동가들은 광주인권상 수상자들의 이름으로, 아시아에서 진행되는 인권 탄압에 대해 지속적으로 문제 제기를 하면서 국제 사회의 관심을 끌어내기로 뜻을 모았다.

이날 광주인권상 수상자 연례회의에서 참석자들은 인도네시아, 라오스, 이란 등 아시아 일부 국가에서의 고문, 실종 문제와 아시아 인권 운동 현장에서의 광주 인권상 수상자들의 역할에 대해 집중 논의했다.

올해 광주인권상 수상자이자 인도네시아 인권 변호사인 라티파 아눔 시레가르 여사에 따르면, 인도네시아에서 분리·독립운동이 한창인 서(西)파푸아지역에서는 변호사의 조력 아래 제대로 된 재판을 받지 못한 상태에서 처형 또는 수감되는 일이 일상화돼 있다고 한다. 인권 활동가는 물론 일반 주민조차 경찰 등 국가 권력에 의해 폭행, 납치, 고문당하고 있다.

나아가 지난 1967년부터 1998년까지 철권을 휘두른 수하르토 대통령 재임 당시 발생한 수백만명에 이르는 희생자들의 피해회복은 커녕 희생자 규모에 대한 신뢰



광주인권상 수상자들이 지난 14일 인도네시아 자카르타에서 열린 ‘2015년 광주인권상 수상자 연례회의’를 마친 뒤 3년전 실종된 라오스 빈민운동가이자 올해 광주인권상 특별상 수상자인 ‘솜바스 솜폰’의 무사 귀환을 염원하고 있다. /자카르타=김형호기자 khh@

할만한 집계조차 없는 형편이다. 활동가들은 “수하르토 축출 이후 무려 5번이나 정권이 바뀌었음에도 진상규명과 피해회복이 더딘 이유는 관료사회 곳곳에 독재 세력이 잔존한다 새롭게 정권을 잡은 인물마다 독재의 길로 들어섰기 때문”이라는 분석을 내놨다.

올해 광주인권상 특별상 수상자인 솜바스 솜폰의 부인인 수이 맹여사도 이날 회의에서 라오스의 인권 탄압과 실종자 문제를 거론하면서 3년 전 실종된 남편의 무사귀환을 염원했다. 농업학자로서 빈민의 식량 문제 해결에 주력해온 솜바스 솜폰은 지난 2013년 12월 라오스 경찰로 추

정되는 세력에 납치된 후 지금까지 행방이 묘연하다. 인권 활동가들은 이날 아시아 곳곳에서 국가 권력에 의한 인권 유린이 ‘현재 진행형’이라는 점에 우려를 표시하면서 주요 인권 이슈에 관해 광주와 광주 인권상 수상자들이 제 목소리를 내고 각국 인권단체와의 연대도 강화해야한다는데 뜻을 같이 했다. 5·18 유족회 등 희생단체와 각국의 민주화운동 희생단체 간 교류도 활성화해야 한다는 의견도 제시됐다.

인권 활동가들이 광주를 주목하는 이유는 다른 아시아 국가 가운데서 광주가 유독 희생자 명예회복과 책임자 처벌 분야에서 괄목할만한 성과를 내고 자국 민주화에도 기여했다는 점에서 아시아 인권

운동사에서 하나의 이정표로 여겨지고 있기 때문이다. 광주를 비롯한 아시아 곳곳에서 독재 권력에 의해 수십 년간 수많은 학살이 있었지만 진상 규명과 책임자 처벌, 희생자 명예회복과 피해배상, 기념사업(국립 묘지 조성 등)이 광범위하게 이뤄진 국가는 찾기 힘들다. 5·18 기념재단 김양래 상임이사는 “인권 옹호에 앞장선 단체나 개인에 광주인권상을 수여하고 격려하는 한편 수상자 연례회의 등 국제사업을 통해 광주가 일궈낸 값진 경험을 나누는 것 또한 5월 정신의 실천”이라고 말했다. /자카르타=김형호기자 khh@

교육부 국립대 총장 ‘간선제’ 확정...진통 예고

국립대 총장 임용후보자 선출 방식이 간선제 방식으로 단일화된다. 대학 안팎에서 총장 직선제 회복을 위한 목소리가 여전한데, 전남대를 비롯한 국립대 총장 선거가 출저어 예정돼 있다는 점에서 향후 진통이 예고되고 있다.

당장, 거점국립대 교수협의회 등은 교육부의 ‘국립대 총장 임용제도 보완 방안’에 대한 반대 성명서를 준비하는가 하면, 17일 국회에서 공론화를 위한 토론회를 개최하는 등 반대 움직임을 본격화할 태세다.

교육부는 15일 국립대 총장 임용후보자 선출 방식을 간선제(총장 추천위원회 선

정) 방식으로 단일화하는 것을 골자로 한 ‘국립대 총장 임용제도 보완 방안’을 발표했다.

이번 방안은 지난 3일 국립대 총장임용제도 보완 자문위원회가 내놓은 건의안에 대한 현장 의견을 수렴해 최종 확정된 것으로, 자문위 안을 대부분 그대로 수용했다.

확정안은 추천위 구성 때 이른바 ‘로또’ 추첨으로 불리웠던 무작위 추첨 제도를 폐지하고 선출과 추천, 지명 등 대학이 스스로 적합한 방식에 따라 위원을 정하도록 했다.

간선제를 채택하는 대학에 쪼든 재정지원도 재정지원 사업 선정 때 가점을 부여

하는 식으로 개선된다. 추천위에는 교수와 직원, 학생 등 대학 구성원의 참여가 확대된다. 현재 25% 이상인 외부 위원 비중은 10% 이상 정도로 줄어든다고 대신 교원은 70% 수준, 직원과 학생은 20% 정도로 추천위를 구성하도록 했다.

교육부는 내년 3월까지 교육공무원 임용령을 개정하는 한편, 장기적으로 직선제 방식을 폐지하고 추천위 방식의 간선제로 총장 임용 후보자 선정 방식을 단일화하기로 하고 법률 개정을 추진할 예정이다. /김지을기자 dok2000@kwangju.co.kr

국내 최장 여수 이순신대교 내일부터 구간속도위반 단속

여수 묘도동과 광양시 금호동을 잇는 국내 최장 현수교인 이순신 대교(연장 2.26km)에서 오는 17일부터 구간 속도위반 단속이 시행된다. 통행 차량은 1일 평균 1만8000여대로, 25%를 차지하는 대형 화물차량과 과속 운전할 경우 교량 내구 수명 단축은 물론 대형 교통사고 위험까지 있다는 목소리가 높았다.

이에 따라 전남도는 지난 11월 초 이순신대교 상행선과 하행선 두 방향 시작점과 끝점에 단속카메라 9대를 설치하고, 한 달 동안 시범운용을 마쳤다. 제한속도는 설계속도와 동일한 시속 60km다. /윤현석기자chadol@kwangju.co.kr

오늘의 날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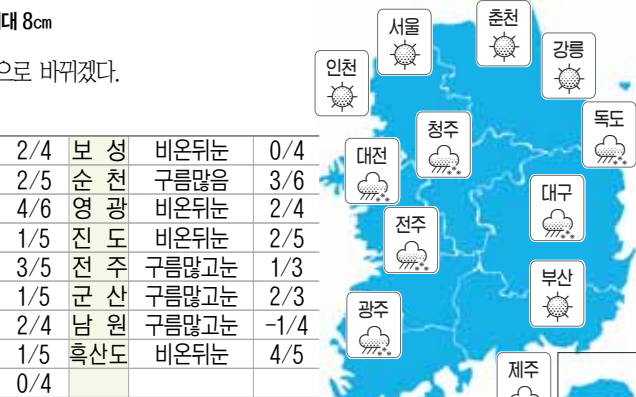
해돋이 07:34 해질 17:22
달돋이 10:59 달질 22:19

내일까지는 최대 8cm

낮에 비가 오다가 눈으로 바뀌겠다.

지역별 날씨 (°C)

광주	비온뒤는 2/4	보성	비온뒤는 0/4
목포	비온뒤는 2/5	순천	구름맑음 3/6
여수	구름맑음 4/6	영광	비온뒤는 2/4
나주	비온뒤는 1/5	진도	비온뒤는 2/5
완도	비온뒤는 3/5	전주	구름맑음 1/3
구례	비온뒤는 1/5	군산	구름맑음 2/3
강진	비온뒤는 2/4	남원	구름맑음 -1/4
해남	비온뒤는 1/5	축산도	비온뒤는 4/5
장성	비온뒤는 0/4		



바다 날씨

지역	바다	오전		오후	
		풍향	파고(m)	풍향	파고(m)
서해	앞바다	서~북서	0.5~2.5	서~북서	2.0~3.0
	면바다	서~북서	2.0~3.0	서~북서	2.0~4.0
남해	앞바다	서~북서	1.0~2.0	서~북서	1.0~2.0
	면바다(동)	서~북서	2.0~3.0	서~북서	2.0~3.0
서부	면바다(서)	서~북서	2.0~4.0	서~북서	2.0~4.0

물때

목포	밀물		썰물	
	05:05	10:17	17:43	22:56
여수	12:21	05:41	00:00	18:32

주간 날씨

17(목)	18(금)	19(토)	20(일)	21(월)	22(화)	23(수)
☁	☀	☀	☀	☁	☀	☁
-2/3	-2/6	-1/7	0/8	3/9	3/10	4/7

생활지수

- 관심: 체감온도
- 낮음: 동파
- 높음: 뇌졸중

내년 수능, EBS 연계 70% 유지

내년 대학수학능력시험과 EBS 교재 연계율도 70%로 유지된다. 다만, 연계 교재 수는 올해보다 다소 줄어든 것으로 보인다.

교육부는 2017학년도 수능-EBS 연계교재 유행을 현행 ‘수능특강, 수능완성’ 2가지로 간소화했다. 국어 영역 교재의 경우 선택형 수능이 폐지되면서 A·B형 8종에서 A·B형 구분 없이 ‘수능특강 화법·작문·문법, 수

능특강 독서’, ‘수능특강 문학’, ‘수능완성 국어’ 등 4종으로 단일화했다.

수학 영역 교재도 A·B형 8종에서 나, 가형 7종으로 바뀌고 영어 영역 교재는 5종에서 4종으로 줄었다.

수능-EBS 연계율은 올해와 같이 70%를 유지한다. 한글 해석본을 외워 영어 시험을 준비하는 문제를 개선하기 위해 영어 영역에서 EBS 교재의 지문을 그대로 활용하지 않는 문제를 출제된다. /김지을기자 dok2000@kwangju.co.kr

전남대병원·광주 교육공무직 오늘 파업

학교급식 중단 우려

전남대학교병원 노조와 광주시교육청 교육공무직 노조가 16일 총파업을 벌인다.

전남대병원 노조는 16일 오전 7시부터 총파업을 예고한 가운데 노사는 15일 오후 8시 현재 막판 협상을 벌이고 있다.

노조는 임금 6.8% 인상과 비정규직 직원 처우 개선, 퇴직수당 폐지에 따른 대체수당 지급, 육아유지 3년 보장 등을 요구했다.

이에 대해 병원 측은 최대 쟁점이 되고 있는 비정규직 직원에 대한 처우를 정규직 직원의 90% 수준까지 올려주고

유방암 검사를 2년에 한번 받을 수 있도록 제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광주시교육청 교육공무직 노조도 임·단협 결렬에 따라 16일 파업에 들어간다.

교육공무직은 학교 급식 등을 담당하는 조리사들이 주를 이루면서 이날 하루 학교 급식 중단이 우려된다.

교육공무직 노조가 포함된 학교 비정규직 처우 개선, 퇴직수당 폐지에 따른 대체수당 지급, 육아유지 3년 보장 등을 요구했다.

이에 대해 병원 측은 최대 쟁점이 되고 있는 비정규직 직원에 대한 처우를 정규직 직원의 90% 수준까지 올려주고

소촌동 모아드림 1,2차 | 온세계아파트 특별분양

교육, 교통, 생활편의까지
광주를 더 크게 누립니다!

41㎡ 53㎡ 80㎡ 104㎡ 107㎡

소촌동 모아드림 1,2차 온세계 아파트

- ▶ KTX 5분거리
- ▶ 시청 10분거리
- ▶ 도로 교통망 최고
- ▶ 무안공항 원할
- ▶ 교육환경 우수 지역
어룡초, 중앙초, 정광중 · 고등학교, 광주주대, 호남대 근거리

선착순 동, 호수지정

풍부한 임대수요

우수한 교육환경

편리한 교통편

문의 062-383-6400